
이 기 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학술원 회원

답변자: **이기문**(서울대학교 명예교수/학술원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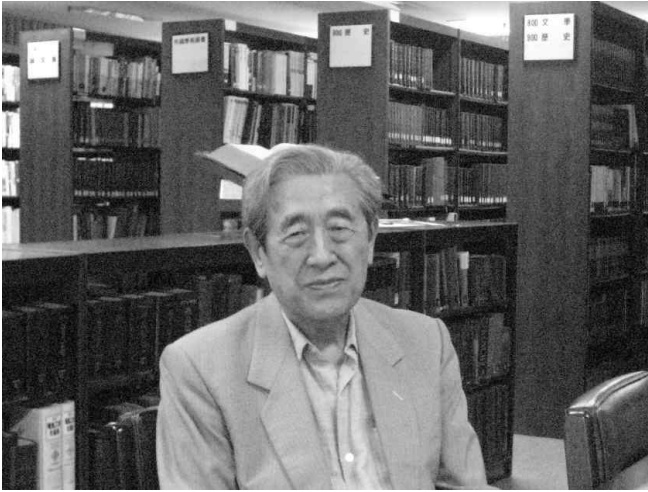
질문자: **김성규**(서울대학교 교수)

때: 2009년 9월 10일(목)

곳: 학술원 도서실

김성규: 선생님 그간 안녕하셨는지요?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가을에 접어들었는지 아침저녁으로는 선선한 것 같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선생님의 근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문: 저는 요즈음도 책상에 앉아 글을 쓰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5세에 정년을 한 뒤에는 집에 있는 날이 많아져서 날마다 글쓰기에 푹 빠져 왔습니다. 저는 정년 전에도 글은 집에서 썼습니다. 젊어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았는데 요즈음은 주로 오전에 글을 씁니다. 오후나 밤에는 능률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늙음이 가까이 오는 징조가 아닌가 합니다.



김성규: 제 생각에는 선생님을 처음 뵈었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우선 선생님의 학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대학에 입학하신 것이 1949년 9월이니까, 이제 국어학을 시작하신 지 60년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선생님께서 국어학을 전공하신 것은 그 이전부터 미리 정해져 있었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국어학을 전공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요?

이기문: 제가 태어나서 자란 옛 고향이 무척 그리웁습니다. 생전에 다시는 가지 못하리라는 생각을 하니 더욱 그리워집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만, 제가 자란 환경이 좀 특이했다는 점을 먼저 말하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 듯합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제 종조(남강(南岡) 이승훈(李昇薰))가 중심이 되어 마을(용동(龍洞))을 새로 만들고 학교(오산중학교(五山中學校))를 세운 덕에 저는 그 마을에서 자라고 그 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혹독한 일제의 압박 밑에서도 민족 정신을 지키려는 집안 분위기에 휩싸여 지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밑받침이 된 것이 기독교 신앙이었습니다. 특히 저희 아부님(‘아버님’의 방

언)은 평생을 순수한 기독교 신앙으로 일관한 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농촌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을 젊어서부터 가지고 계셨는데 19세기에 덴마크의 농촌을 부흥시킨 그룬트비(N. F. S. Grundtvig)의 국민고등학교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말과 역사로써만 그 민족을 깨우칠 수 있다는 그의 신념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형제는 어렸을 때 이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저희 형제가 쓴 공부방 책장에는 기독교에 관한 책들과 우리나라의 역사, 문학, 언어에 관한 책들이 꽂혀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들과 친숙해졌습니다.

김성규: 선생님께서 학부 졸업 논문인 ‘어두자음군의 생성과 발달에 대하여’를 쓰신 후, 이희승 선생님께서 “혜성과 같이 나타난 신진학자”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는 부산 피난 시절이어서 연구 여건이 그리 좋지 않았을 것 같은데, 당시의 상황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이기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 졸업 논문은 부산으로 피난 가서, 부산 시내에서 송도로 가는 언덕바지에 조그만 판잣집을 짓고 사과 껍박을 책상 삼아 쓴 것입니다. 그때 제가 주로 참고한 것은 방중현(方鐘鉉) 선생의 「고어 재료 사전」(1946)이었습니다. 중세국어의 예는 이 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램스테트(G. J. Ramstedt)의 「한국어 어원 연구」(Studies in Korean Etymology, Helsinki 1949)를 조금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헬싱키 올림픽(1952년 7월)에 한국 선수단을 이끌고 가셨던 이상백(李相佰) 선생이 이 책 한권을 이승녕(李崇寧) 선생께 드린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 책을 보기 위해 동래의 선생님 댁에 여러 번 간 일이 있습니다. 복사기도 없었던 때라 필요한 부분을 베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타이제어(통구스, 몽고, 토이기제어)가 아득한 동경(憧憬)의 대상이었던 저에게 이 책의 내용은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중세

국어의 어두자음군이란 엄청난 문제에 대해서 논문을 쓰려고 한 것도 이 책을 보고 흥분한 데서 짝튼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승녕 선생께서 이 논문을 「진단학보」(震檀學報)에 내라고 하시며 「진단학보」의 논문은 200자 원고지 200장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하셔서 억지로 늘리느라고 땀을 흘린 일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이 논문 집필 중에 기뻐던 것은 중세국어의 ‘ㅁ’, ‘ㅂ’에 제주도 방언이 유기음 ‘ㅌ’, ‘ㅊ’으로 대응함을 발견한 일이었습니다. 저로서는 처음으로 맞보는 발견의 기쁨이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 놓인 석주명(石宙明) 선생의 「제주도 방언집」(1947)을 뒤적이다가 얻은 것입니다.

김성규: 환도 이후에는 만주어와 여진어(女眞語)를 독학으로 시작하셨고, 이승녕 선생님의 권유로 27세에 ‘八歲兒 研究’라는 첫 강의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후 국어와 만주어의 비교에 관한 석사 학위 논문을 쓰셨는데요, “첫사랑처럼 잊혀지지 않는, 그러나 모든 것이 아직 아리송하기만 한” 분야라고 표현하신 국어의 계통 연구에 매력을 느끼셨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기문: 알타이제어를 공부하고 싶은 소원은 간절했지만 1950년대의 서울에서는 이 소원을 이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만주어 공부의 길이 조금 열렸습니다. 환도 이후 18세기에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청학서(淸學書) 두 권(「八歲兒」, 「小兒論」)을 볼 수 있었고 서양인들이 쓴 만주어 문법 몇 권을 볼 수 있는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혼자서 공부한 것이니 초보 단계를 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1956년인가, 이승녕 선생께서 제게 만주어 강의를 하라고 하시며 저로서는 여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부랴부랴 준비를 했는데, 국문과 강의로는 ‘만주어 개설’이나 ‘만주어 강독’은 부적합하다고 해서 하는 수 없이 ‘팔세아 연구’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이상한 강의명이 그때 교내

에서 화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준비한 강의 노트의 일부를 정리한 것이 ‘만주어 문법 서론’(『한글』 123호, 1958)입니다. 그 무렵 저는 만주어, 여진어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1957년에 석사 논문으로 ‘만주어와 한국어의 비교 연구’(A Comparative Study of Manchu and Korean)를 썼고, 이듬해에 ‘여진어 지명고’(女眞語 地名考)(『문리대학보』 5권 1호)와 ‘중세 여진어 음운론 연구’(『서울대학교 논문집』 7호)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되돌아보면 저는 그때 이래 계통 연구와 짝사랑을 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창 젊었을 때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려는 열망이 있었던 셈이지요.

김성규: 국어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기문 선생님’ 하면 떠오르는 책은 1961년에 초판이 나온 『국어사개설』과 1972년에 나온 『국어음운사 연구』일 것 같습니다. 그 책들을 집필하신 과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어사개설』은 독일어와 일본어로도 번역되었고, 영어판도 준비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기문: 애당초 1958년 말인가 59년 초에 김동욱(金東旭) 선생이 ‘국어국문학강좌’라는 이름의 총서(叢書)를 민중서관과 계획하고 선생은 ‘국문학개설’을 쓸 테니 저더러는 ‘국어학개설’이나 ‘국어사개설’을 쓰라고 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공부를 시작했을 뿐인 애송이가 개설을 쓰다니 얼토당토아니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구(巨軀)인 김 선생의 강권을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1961년에 간행된 『국어사개설』의 초판은 그 내용이 참으로 초라했습니다. 72년에 개정판을 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 썼습니다. 초판 이후 10년 동안에 국어사 연구가 엄청나게 성장했음을 이 개정판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어음운사연구』는 언젠가는 쓰려고 마음에 두었던 것인데 박사 학위

를 위하여 앞당겨 쓰게 된 것입니다. 저는 진작 박사과정을 밟았었는데, 그때는 아직 구제(舊制)가 이어지고 있어서 저도 구제로 학위를 하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70년대에 들어 이제는 신제(新制)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는 학내의 여론이 있어서 신제로 논문을 제출하기로 한 것입니다. 「국어음운사연구」는 원래는 큼직한 책으로 구상했었는데, 시간도 촉박하고 해서 압축해서 썼습니다.

「국어사개설」의 영어판은 오래 전에 시작되었는데 이제야 겨우 완성되었습니다. 램지(S. R. Ramsey) 교수가 영어 독자들에게 적합하도록 다시 쓰느라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김성규: 네, 그러면 「국어사개설」의 영어판도 곧 출간이 되겠군요. 이제 조금 다른 문제들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선생님 서재에는 1920년대와 1930년대에 간행된 시집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젊은 날의 시심(詩心)을 “화로의 재 밑에 고이 문혀 있는 불씨”에 비유하신 적도 있으시고, 국어학의 관점에서 시를 연구해 보고 싶은 꿈을 피력하신 적도 있습니다.

이기문: 한국 사람치고 젊어서 시 한두 편 쓰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어려서 윤석중(尹石重)의 동요와 고향의 대선배인 김억(金億), 김소월(金素月) 두 시인의 시를 읽고 동요 같은 시를 쓴 일이 있고 서울에 와서는 정지용(鄭芝溶)을 비롯한 30년대 시인들의 시를 읽고 그 흥내를 내보기도 했습니다. 그 뒤로는 시를 쓴 것이 없습니다. 60대만 해도 시를 써야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지금 간직하고 있는 시집들은 일제 시대에 아부님이 모으신 것들입니다. 그중에는 김소월의 「진달래꽃」(초판), 백석(白石) 시집 「사슴」이 있습니다. 「사슴」은 100부 한정판이었는데 저자의 증정본입니다. 저자의 친필이 들어 있는 책이어서 더욱 소중합니다.

백석의 고향 마을은 오산학교 동쪽에 있었고 저희 마을은 남쪽에 있었습니다. 걸어서 40분, 50분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사슴」에 실린 시의 분위기는 제게는 아주 생소한 것입니다. 기독교 마을과 그렇지 않은 마을의 차이가 참으로 컸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의 시에 나오는 사투리들도 제게는 생소한 것이 적지 않습니다.

김성규: 선생님께서 스승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실 것 같은데, 학문적으로 선생님의 마음속에 남아 있는 스승은 어떤 분들이신지요? 저희 세대는 뵙지 못한 방중현 선생님에 대한 말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문: 이희승 선생님, 이승녕 선생님, 방중현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저는 국어학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고 곧 이희승 선생님의 「국어학개설」 강의를 들었는데, 그때의 감격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내가 할 공부가 바로 이것이라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2학년에 올라갔을 때 6·25가 터져서 학교에 가지 못했고 1·4후퇴로 부산에 피난을 가서 이승녕 선생님과 방중현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두 분 선생님의 강의는 제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제 피가 되고 살이 되었습니다. 제가 학문이라고 해온 것을 되돌아보면 이승녕 선생님이 밝히신 햇불을 따른 것임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음운사(音韻史)를 주로 연구하게 된 것, 비교 연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전혀 이승녕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방중현 선생님의 서거(1952년 11월 18일)는 학계 전체의 큰 슬픔이었고 제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칠척장신(七尺長身)의 거구요, 보통 사람은 들기도 어려울 정도의 큰 가방을 들고 다니신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께는 여쭙고 싶은 것이 있어도 어려워 못 했었는데……. 선생님의 고향은 저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으로 오산중학교에 다니셨습니다. 저

희 아버님의 몇 년 후배였지만 가까이 사귀셨다고 합니다. 해방 전에 아버님께서 「두시언해」(杜詩諺解 重刊本)를 구입했었는데, 방 선생님께서 주선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방 선생님 하면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계림유사 연구(鷄林類事 研究)' 강의를 듣고 학기 말 리포트로 일본 학자 고노[河野六郎]의 저서(「朝鮮方言學試考- 鋏語考」, 1945)를 읽은 소감을 써냈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이 책의 내용에 상당히 마음이 끌렸었습니다. 달포쯤 뒤에 선생님을 뵈었을 때 선생님께서 “그 책은 좋은 점도 있지만 달리 생각해야 할 것도 많이 있으니 주의 깊게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마디 말씀이 이상하리만큼 제 마음속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이 말씀이 그 뒤 제 연구의 지침(指針)이 되었습니다. 제가 '가위'의 역사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하게 된 것도, 차분히 독창성(獨創性)을 추구함을 제 학문의 기본으로 삼게 된 것도 이 말씀에서 우러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외국에 가서 공부하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천만 뜻밖에 1960년에 그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도 다른 곳 아닌 미국 하버드대학에 가게 된 것입니다. 이해에 고려대학의 추천으로 하버드 옌칭인스티튜트(Harvard-Yenching Institute)의 방문 학자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지낸 1년은 꿈만 같았습니다. 제가 오랜 동안 꿈꾸어온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첫째로 클리브스(F. W. Cleaves) 교수로부터 몽고 문어(文語)와 「원조비사」(元朝秘史)의 중세몽고어를 배웠습니다. 이로써 몽고어학의 확고한 기초를 닦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프리착(O. Pritsak) 교수로부터 고대 토이기어 비문(碑文)의 해독과 통구스어학을 배웠습니다. 함부르크대학의 프리착 교수가 그해에 마침 초빙 교수로 오게 되어 만난 것입니다. 교수는 「우랄·알타이 연보」(Ural-Altäische Jahrbücher)의 편집인으로 제 논문(석사 논문의 일부)을 그 잡지에 실어 준 분이었습니다. 교수의 제의로 매주 한 번씩 통구스어(주로 에벤키 어)와 중세국어의 지식을 서로 교환하는 사적인 자리를

가졌던 일이 새삼 생각납니다. 셋째로 겨울 방학에 뉴욕의 컬럼비아대학에 가서 포페(N. Poppe) 교수를 뵈 수 있었습니다. 시애틀의 워싱턴대학 교수였는데 안식년을 맞아 뉴욕에 와 계셨습니다. 마침 「알타이어 제어 비교문법」(Vergleichende Grammatik der Altaischen Sprachen)이 간행된 직후여서 달포 가까이 선생님으로부터 이 책을 중심으로 알타이어학에 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뒤 1965년에 포페 선생은 저를 워싱턴대학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마침 그 대학에 제가 50년대에 서울에서 사귄 루코프(F. Lukoff) 교수가 있어서 두 분이 협의하에 저를 초청한 것입니다. 저는 2년간 한국어학을 강의하면서 포페 선생의 가르침을 받아 몽고어학과 알타이어학에 관한 깊이 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저는 국내와 국외에서 세계 최고의 스승님들을 모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로서는 더할 수 없는 큰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능력이 모자라 스승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음을 못내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김성규: 네, 다음으로는 국어학을 연구해 나아가는 후학들이 연구의 방향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문: 제가 학문의 길에 들어선 1950년대는 우리 국어학이 태동된 시기였는데 마침 제가 그 태동의 한가운데 서게 되어 어쩔 수 없이 허덕이게 된 것입니다. 제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졌으니 휘청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든든한 동료와 후배들이 옆에 있어서 겨우 지탱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국어학에 대하여 복 받은 학문이란 생각을 해왔습니다. 국어학이 지난 반세기 동안 큰 발전을 해왔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전의 결과로 요즘은 젊은 학자들의 연구 영역이 좁아지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각자 정해진 영역 안에서만 연구를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면에서는 바람직한 일이지만, 국어학 전체의 큰 테두리를 늘 마음에 두고 살피는 자세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김성규: 끝으로 선생님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이기문: 이 나이에 앞으로의 계획이란 것이 있을 리 없습니다. 그저 그동안 벌여온 일들을 마무리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해온 어원 연구 작업을 어떤 형태로든 끝을 맺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성규: 선생님, 오늘 혹시 누가 되는 질문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